

빌헬름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상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빌헬름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III.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판본, 구성과 특징들
- IV. 나가는 말

[초록]

2019년 말에 빌헬무스 아 브라켈(Wilhelmus à Brakel, 1635-1711)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전4권)가 한글로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아 브라켈은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기에 활동했던 수많은 화란 신학자, 목회자들 중에 가장 대중적인 작가이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320년 동안 절판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읽혀온 실천적 교의학이다. 이 중요한 대작이 화란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다가, 최근에 영어로 완역이 되고, 그 영역본에 근거하여 마침내 한역본도 출간이 되었다. 이러한 대작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나더러 레포르마찌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한역본의 출간을 기념하여 본고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빌헬무스 아 브라켈과 그의 주저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소개하려고 시도했다. 먼저는 빌헬무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Ⅱ),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출판 경위, 번역 역사, 그리고 특징등에 대해서 간추려 보았다(Ⅲ). 아 브라켈은 8년간 개혁신학을 공부한 후에, 49년 동안 목회에 전념한 목회자로서 목회 만년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본서의 실천적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 때문에 화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꾸준히 읽혀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아 브라켈의 본서를 읽고 연구함을 통하여 경건과 학식의 조화라고 하는 나더러 레포르마찌의 이상을 분명하게 파악하며,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빌헬무스 아 브라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나더러 레포르마찌, 17세기 화란 개혁교회, 개혁교의학,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1. 들어가는 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2019년은 도르트신경(*Canons of Dort*) 반포 4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다. 그리고 이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경사스러운 일은 빌헬무스 아 브라켈(Wilhelmus à Brakel, 1635-1711)¹의 주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한글로 번역 출간된 것이다.² 매일같이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구태여 이 책의 역간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질문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장로교회에는 아직도 칼빈 이후 개혁과 신학의 역사, 특히 화란 개혁신학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 브라켈은 네덜란드 개혁신학사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으며, 그의 주저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 중에는 가장 유명한 교의학”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³ 빌름 판트 스페이꺼르(Willem van't Spijker)는 나더러 레포르마찌(*Nadere Reformatie*) 시기에 있어 “위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아버지 아 브라켈이었으며, “그의 실제적 교의학 저작은 적어도 개혁신앙을 지닌 네 세대 또는 다섯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한 훌륭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라고 호평한다.⁴ 아벨도오른의 안 판

1 à Brakel을 국내에서는 아 브라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란어 원음을 제대로 살리자면 아 브라켈이나 아 브라켈(혹은 아 브라끌)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이신열교수의 표기에 따라 아 브라켈로 표기했다(Willem van't Spijker, 이신열 역, “빌헬무스 아 브라켈 (1),” 『갱신과 부흥』 13 (2013), 168-181; “빌헬무스 아 브라켈 (2),” 『갱신과 부흥』 14 (2014), 167-178.

2 Wilhelmus à Brakel, *Logike Latreia dat is Redelyke Godsdienst* (1700, 3판- 1707):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를 trans. Bartel Elshout (Orlando: Soli Deo Glorian Pub., 1992-1995); 김효남, 장호준, 서명수 공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전4권 (서울: 지평서원, 2019). 화란어 제목 *Logike Latreia*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로기케 라트레이아(*λογικὴ λατρεία*)라는 구문에서 따온 것이다(*Παρακαλῶ οὖν ὑμᾶς, ἀδελφοί, διὰ τῶν οἰκτιρῶν τοῦ θεοῦ παραστήσαι 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θυσίαν ζῶσαν ἁγίαν εὐάρεστον τῷ θεῷ, τὴν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 ὑμῶν*).

3 H. Kraan, “Wilhelmus à Brakel,” *Christelijke Encyclopaedie*, 1st ed. (Kampen: Kok, 1926), 1:374: “Op den grondslag van Gods Woord is dit geschrift de meest populaire dogmatiek geworden van de Gereformeerden in Nederland.”

4 Willem van't Spijker, 이신열 역, “네덜란드의 제2종교개혁,” 『갱신과 부흥』 제12호 (2013), 211. 나더러 레포르마찌에 전문 연구가였던 C. 흐라프란트 역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헨드르(Jan van Genderen)은 아 브라컬의 대작이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교의 학이며, “교회의 교의를 신앙적 삶과 연관시키는 방식에 있어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 최근에 아리 드 뢰우퍼(Arie de Reuver)도 “용어의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확실히 그 책은 조직신학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후에, 아 브라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오히려 “목회적 적용들을 가진 교리에 대한 대중적인 진술로 묘사될 수 있다”고 평가내리기도 했다.⁶

아 브라컬의 『합당한 예배』는 1700년에 출간된 이래 전문적인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 환영받고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일반 가정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헬렌브룩(Abrahm Hellenbroek, 1658-1731)이 아 브라컬 장례식 설교(1711)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아 브라컬은 이미 살아 생전에도 “아버지 브라컬”(vader Brakel)이라는 애정어린 호칭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⁷ 개혁파 진영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시 성경을 읽은 후에 아 브라컬의 책을 일부분씩 읽어나가는 것이 오랜 관례이기도 했다. 엘스하우트(Elshout)에 의하면 2차대전전까지 개혁파 신도들이 긴긴 겨울밤 내내 이 대작을 읽는 것이 관례적이었다고 전해준다.⁸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도 이 대작을 열심히

omdat hij een van de duidelijkste en invloedrijkste vertegenwoordigers van de Nadere Reformatie is geweest.”(T. Brienens, e.a. eds. *Theologische aspecten van de Nadere Reformatie* [’s-Gravenhage: Boekencentrum, 1993], 41).

- 5 Jan van Genderen, “à Brakel,” *Christelijke Encyclopedie*, 2nd ed. (Kampen: Kok, 1957), 2:14: “Het meest opmerkelijk is de wijze, waarop Brakel het dogma der kerk in verband met het geloofsleven. Zijn werk draagt dan ook een zeer praktisch karkater.”
- 6 Arie de Reuver, *Sweet Communion: Trajectories of Spirituality from the Middle Ages through the Further Reformation*, trans. James A. de Jong (Grand Rapids: Baker, 2007), 234.
- 7 “Brakel niet pas na zijn dood de erenaam ‘Vader Brakel’ kreeg, maar al tijdens zijn leven zo werd aangesproken.”(Jan van Genderen, “Wilhelmus à Brakel (1635-1711),” in T. Brienens, e.a. eds., *De Nadere Reformatie: Beschrijving van haar voornaamste vertegenwoordigers* [’s-Gravenhage: Boekencentrum, 1986], 165).
- 8 Bartel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a Brief Evaluation of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Grand Rapids :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7), 6. 비키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도 말해준다: “18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던 농부의 가정에서는 매일 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성경을 읽은 후에 ‘아버지 아 브라컬’이 쓴 책의 한 구절을 가족들에게 읽어 주는 장면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끝까지 읽기를 반복했다.”(Beeke, “한국어판 머리말,” in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19).

읽은 사례들도 전해온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화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 하나인 개혁파 회중(Gereformeerde Gemeente)의 창립자인 게르스톤(G. H. Kersten, 1882-1948)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10대의 나이이던 게르스톤은 한 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아 브라컬의 대작과 씨름하곤 했다. 심지어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담은 대야에 발을 넣고서 까지 말이다.⁹

1992-1995년 어간에 드디어 영역본이 출간된 후에 미국의 개혁신학자들도 본서의 가치에 대해 호평을 내어놓았다. 존 페스코(John Fesko)는 본서가 “스콜라적인 엄밀성과 뜨거운 목회적인 경건을 결합하여 보여주는 엄청난 통찰력 넘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고, 데렉 토마스(Derek H. Thomas)는 “신학에 있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결합하려는 명시적인 관심을 위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아 브라컬의 저술이 “개혁파 신학체계의 상세한 내용을 탐색”하되 독자들로 하여금 매순간마다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고 평가한다. 영어권에서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 화란에서는 Oude Gereformeerde Theologie라고 지칭하기도 함) 연구사에 큰 기여를 한 리처드 멀러(Richard Muller)는 아 브라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개혁파 교리 진술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개인 경건에의 적용을 잘 조화시킴으로 17세기 네덜란드 나더러 레포르마찌와 연관된 신학적인 프로젝트의 훌륭한 예”를 제공했다고 평가내린다.¹⁰ 한편 영역본이 출간된 후에 역사적 개혁주의 진영에서 많이 읽혀져 왔으며, 여러 연구 논문들이 공표되기도 했다.¹¹

9 Joel R. Beeke and Bartel Elshout, “Preface,” in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trans. Bartel Elshout, 4vols. (Orland: SDG, 1992-1995; 그 이후에는 Grand Rapids: RHB에서 출간하고 있음), 1:xix-xx; H. Goldverdingen, *Rev. G. H. Kersten*, trans. Bartel Elshout (Grand Rapids: Netherlands Reformed Book and Committee, 2007), 15. 영역본의 편집자인 조엘 비키는 게르스톤의 개혁파회중의 북미판인 NRC교단 출신이다. 다시 말해서 비키가 영역본 작업을 주도한 이유는 게르스톤의 신학이나 영성과 동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서 연원한다고 할 수가 있다(Paul M. Smalley, “Introduction: The Puritan Piety of Joel Beeke,” in Michael A. G. Haykin and Paul M. Smalley eds., *Puritan Piety: Writings in Honor of Joel R. Beeke* (Fearn: Christian Focus, 2018), 11.)

10 이상의 세 신학자들의 평가는 영역본 뒷표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화란에서는 지난 300년 동안 아 브라켈의 대작이 애독되고 연구되어 왔고, 미국에서도 영역본에 근거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한글로 번역 출간되는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출간에 즈음하여 아 브라켈과 본서에 대한 연구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아 브라켈과 주저에 대해 개관해 보려고 한다. 이어지는 본론 2에서는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3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판본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서론적 연구에 이어 국내에서도 아 브라켈과 아 브라켈의 신학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II. 빌헬무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 11 Todd D. Baucum, "Innate Knowledge in the Thought of Wilhelmus à Brakel," *Puritan Reformed Journal*, 6/2 (2014), 65-87; Joel R. Beeke. and Paul M. Smalley, "Wilhelmus à Brakel's Biblical Ethics of Spirituality," *Puritan Reformed Journal*, 8/2 (2016), 107-124; Brandon James Crawford, "'This is Felicity and the Work of Glorified Souls': Wilhelmus à Brakel on the Glory and Glorification of God," *Puritan Reformed Journal*, 7/2 (2015), 147-176; Lydia Kim-van Daalen, "Wilhelmus à Brakel's Spirituality of Virtue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l Care," *Puritan Reformed Journal*, 3/1 (2011), 279-303; Jonathan Holdt, "Wilhelmus à Brakel's Use of Doctrine in Calling Sinners to Repentance and Faith," *Puritan Reformed Journal*, 3/2 (2011), 267-290; Ryan M. Hurd, "Wilhelmus à Brakel's Pastoral Predestination," *Puritan Reformed Journal*, 9/1 (2017), 141-162; Richard A. Muller,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Stability of Divine Law in Seventeenth-Century Reformed Orthodoxy: A Study in the Theology of Herman Witsius and Wilhelmus à Brake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9/1 (1994), 75-100; Paul M. Smalley, "'Satisfied with the Lord's All-Sufficiency': Wilhelmus à Brakel on Joy," *Puritan Reformed Journal*, 3/2 (2011), 235-266. 멀러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논문들은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기관지에 공표된 것들이다. 한편 www.umiproquest.com을 검색해 보면 아 브라켈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단 한편도 제출된 적이 없다.
- 12 국내에서는 서요한, "빌헬무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신학사상," 『충신대논총』 30 (2010), 430-469가 유일한 학술논문이다. 또한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의 글들이 다음과 같이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제2종교개혁," 『갱신과 부흥』 12 (2013), 189-211; "빌헬무스 아 브라켈 (1)," 『갱신과 부흥』 13 (2013), 168-181; "빌헬무스 아 브라켈 (2)," 『갱신과 부흥』 14 (2014), 167-178.

우리가 빌헬름스 아 브라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바빙크의 강조처럼 한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¹³ 아 브라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나더러 레포르마찌(Nadere Reformatie) 시기에 활동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다는 점과 그가 활동했던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초에 이르는 화란의 국내의 상황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먼저 말한다면 아 브라컬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기는 화란 역사 가운데 “황금의 세기”(De Gouden Eeuw)라고 불리는 경제적, 문화적 절정기였으나, 그의 생애 중후반으로 갈수록 화란은 여러 전쟁에 휩쓸리면서 국가적 위세가 약화되어 간 시대라고 하는 점이다.¹⁴ 처음에 언급한 나더러 레포르마찌는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화란어 단어 명칭인데, 진전된 종교개혁(Further Reformation)이나 제2차 화란종교개혁(The Second Dutch Reformation)으로 옮겨진다. 이 종교적인 운동은 종교개혁의 성과를 삶과 인생 영역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적용하고자 한 운동이었고, 개혁파 정통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종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¹⁵ 아 브라컬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란의

13 김창원박사에 의하면 바빙크는 “행위는 존재[됨됨이]에 뒤따른다(*operari sequitur esse*)”라는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애호하여 그의 교의학에서 자주 인용했다: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1』(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1:491, 770; 2:671, 697; 3:676; 4:90, 99(김창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언약 신학에 대한 연구”(철학박사, 백석대학교, 2014), 34, 각주1.

14 아 브라컬이 산 시대의 화란 역사에 관해서는 김영중, 『네덜란드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121-185; Jonathan I. Israel,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595-956; Maarten Prak,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 Diane Web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등을 보라.

15 나더러 레포르마찌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주요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W. van't Spijker, 이신열 역, “네덜란드의 제2종교개혁,” 『갱신과 부흥』 12 (2013), 189-211; Joel R. Beeke,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adere Reformati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8/2 (1993), 298-327; F. Ernest Stoeffler, *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 송인설, 이훈영 역, 『경건주의 초기 역사』(서울: 솔로몬, 1993), 188-280; T. Brienens, e.a. eds. *De Nadere Reformatie: Beschrijving van haar voornaamste vertegenwoordigers* ('s-Gravenhage: Boekencentrum, 1986); T. Brienens, e.a. eds. *Theologische aspecten van de Nadere Reformatie* ('s-Gravenhage: Boekencentrum,

특유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어서 그의 생애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출생과 사역 준비기간(1635-1662)

아 브라켈은 1635년 1월 2일 화란 북부 프리슬란트주 주도인 레이바르든(Leeuwarden)에서 개혁교회 목회자였던 테오도루스 아 브라켈(Theodorus à Brakel, 1608-1669)과 마르하레타 홈마(Margaretha Homma)의 아들로 태어났다. 빌헬름(혹은 빌름 Willem)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 6명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독자였다. 테오도루스는 비록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탁월한 경건성을 비롯한 목회적 자질을 인정받아 1637년에 목회자로 임직되었고,¹⁶ 1669년에 소천하기까지 목회 사역을 했으며 몇 권의 저술을 출간하기도 했다.¹⁷ 빌헬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성탄절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은혜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¹⁸ 특히 테오도루스가 비어스(Beers, 현재 표기는 Bears) 마을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빌헬름스는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레이바르든 소재 라틴스쿨을 다녀야했는데, 빌헬름스는 토요일과 월요일에 기도하며 그 길을 다니곤 했다.¹⁹ 한편 어머니

1993); Jeol R. Beeke and Randall J. Pederson, *Meet the Puritans* (Grand Rapids: RHB, 2006), 740-823. 그리고 W. J. op't Hof, e.a. eds., *Encyclopedie Nadere Reformatie*, 3vols. (Utrecht: De Groot Goudriaan, 2015-)는 현재까지 인명을 알파벳으로 다룬 두 권만 출간되었고, 마지막 3권은 미출간이다. 또한 최근에 출간된 Joel Beeke, *Reformed Preaching*, 송동민 역, 『설교에 관하여』(서울: 복있는사람, 2019), 361-388도 보라.

16 A. Ros, *Theodorus à Brakel: Een voorbeeld van allertederste Godsvrucht* (Barneveld: Koster, 2000), 30-33. 테오도루스 아 브라켈의 약전과 경건론에 대해서는 de Reuver, *Sweet Communion*, 163-199을 보라.

17 그의 저술들은 19세기까지 빈번하게 출간되었으며, 『영적 삶의 단계들』(*De trappen des geestelyken levens*, 1670)라는 책은 현재도 출간되고 있다(Ros, *Theodorus à Brakel*, 97-101)

18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22-84에 W. 피레트가 쓴 “빌헬름스 아 브라켈” 소전기가 실려있다.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켈,” 23-25를 보라. 피레트의 소전기는 W. Fieret en A. Ros, *Theodorus à Brakel, Wilhelmus à Brakel en Sara Nevius* (Houten: Den Hertog, 1988), 61-121을 영역한 것이다. 피레트는 28년 후에 확장된 전기를 새로 출간하게 된다: W. Fieret, *Wilhelmus à Brakel: Een gedreven dienaar in Gods kerk* (Houten: Den Hertog, 2016). 본고에서는 소전기와 최신 전기를 함께 참고했다.

19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켈,” 25(= Fieret en Ros, *Theodorus à Brakel, Wilhelmus à*

훤마 역시 경건한 여인으로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많이 올린 여인이었기에, 후일 빌헬름스의 장례식 설교에서 헬렌브룩은 훤마와 빌헬름스 모자를 옛날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누스 모자에 비교할 정도였다.²⁰

빌헬름스 아 브라켈은 1654년에 프라너꺼르(Franeker) 아카데미²¹에 진학하여 크리스티아누스 스키타누스(Christianus Schotanus, 1603-1671) 교수와 요하네스 팔끄니어(Johannes Valckenier, 1617-1670) 교수 등에게 배운다. 스키타누스는 재세례파와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반대자로 유명했고, 팔끄니어는 코케이우스주의자였다.²² 아 브라켈은 1659년에 졸업하기까지 5년간 프라너꺼르 아카데미에서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언어공부, 철학, 자연과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공부를 했다. 아 브라켈은 목회자들도 “지성과 생각하는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²³ 한편 프라너꺼르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 브라켈은 코케이우스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다.

1659년에 아카데미를 졸업한 아 브라켈은 레이바르던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루고 합격하게 되지만 당시 화란 북부지역에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청빙하는 곳이 생기기까지 우트레흐트대학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더 하기로 한다. 당시 우트레흐트에는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Gisbertus Voetius, 1589-1676)교수와 에세니우스(A. Essenius)교수 등이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하에 아 브라켈의 신학적 경향이 푸치우스주의로 확정된다. 우리는 아 브라켈과 당시 화란 신학의 주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푸치우스와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라는 두 거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akel en Sara Nevius, 65).

²⁰ Fieret, *Wilhelmus à Brakel*, 33.

²¹ 라틴어로 *Academia Franekerensis*라 불리우는 이 대학은 1585년에 설립되어 1811년까지 존재했다. departments of Theology, Law, Medicine, Philosophy, Mathematics and Physics과 등이 있었고, 한때 데카르트가 공부한 적도 있고, 보허르만, 마코비우스, 아메시우스나 코케이우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가르친 곳이기도 하다(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ity_of_Franeker. 2019년 12월 13일 검색).

²² Fieret, *Wilhelmus à Brakel*, 40-41. 피레트의 최근 전기에서도 아 브라켈의 프라너꺼르 시절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다.

²³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켈,” 25;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2:194.

우트레흐트의 푸치우스는 젊은 나이에 도르트총회에 참석하였고, 우트레흐트대학 신학부 개교때부터 소천하기까지 당시 개혁파 정통주의 혹은 나더러 레포르마찌의 신학적 거장이었다.²⁴ 반면 레이든의 코케이우스는 원어 성경 연구에 탁월성을 드러내던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함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²⁵ 그러나 푸치우스와 코케이우스의 신학적인 차이는 양자간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논쟁이 아 브라컬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이었다.²⁶ 아 브라컬은 우트레흐트에서 푸치우스에게 직접 신학과 경건을 배우고 나서는 푸치우스의 노선을 따르게 된다. 코케이우스뿐 아니라 소키누스주의나 데까르프주의에 대항해서 개혁주의 정통을 수호하는 푸치우스의 신학과 영성은 청년 아 브라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²⁷

아 브라컬이 우트레흐트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의 주선으로 당시 푸치우스 서클²⁸에 참여하게 되고, 우트레흐트에서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한 여성이던

-
- 24 푸치우스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Joel Beeke, *Gisbertus Voetius: Toward a Reformed Marriage of Knowledge and Piety* (Grand Rapids: RHB, 2001)이다.
- 25 개혁파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테오도어 운테어아익(Theodor Undereyck, 1635-1693)조차도 푸치우스와 코케이우스를 “존경하는 최고의 두 스승”(byderseits Hochgeehrte Praeceptores)라고 평가했다(주도홍, “독일 개혁파 경건주의 연구의 과제,” 『역사신학논총』 2 (2000), 141.) 코케이우스에 대한 표준적인 최근 연구서는 W. J. Van Asselt, *The Federal Theology of Johannes Cocceius (1603-1669)*, trans. Raymond Andrew Blacketer (Leiden: Brill, 2001)이다.
- 26 푸치우스는 주일의 안식일주의를 주장했고, 코케이우스는 칼빈과 루터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성희찬,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주일 논쟁- 푸치우스 (Voetius, 1589-1676) 파와 콰케우스 (Coccejus, 1603-1669) 파의 논쟁을 중심으로 -,” 『진리와 학문의 세계』 7/3 (2002), 15-46; 주도홍, “개혁교회 정통주의의 영성 이해 -푸치우스와 코케이우스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3 (2017), 223-243 등을 보라. 일반 역사학자인 이스라엘도 이 논쟁에 대해 약술한다(Israel, *The Dutch Republic*, 665-666). 아 브라컬은 안식일에 관해서는 푸치우스 입장을 따른다(Kyle James Dieleman, “The Battle for the Sabbath in the Dutch Reformation: Devotion or Desecratio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Iowa, 2017), 130-164).
- 27 F. J. Los, *Wilhelmus à Brakel*. Proefschrift te Leiden (Leiden: G. Los, 1892), 31. 헤르만 바빙크는 요하네스 아 마르크와 더불어 아 브라컬의 주저에 대해서 “푸치우스 노선을 따라 저술된 마지막 교의학”이었다고 평가한다(Bavinck, 『개혁교의학1』, 264).
- 28 푸치우스시절 우트레흐트에서의 나더러 레포르마찌에 관해서는 F. A. Lieburg, *De Nadere Reformatie in Utrecht ten tijden van Voetius* (Rotterdam: Lindenberg, 1989)를 보라.

안나 마리아 판 스크르만(Anna Maria van Schurman, 1607-1678)²⁹뿐만 아니라 헨리쿠스 페이혼(Henricus Veegen)의 미망인이던 사라 네피우스(Sara Nevius, 1632-1706)와도 친분을 쌓게 된다. 1664년에 이르러 아 브라컬은 푸치우스 서클에 속했던 경건한 이 여성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된다.³⁰

2. 프리슬란트 주에서의 목회기(1662-1683)

아버지의 목회지가 있던 프리슬란트 주에서 목회지를 구했으나 임지를 구하지 못해 우트레흐트에 체류했던 아 브라컬에게 1662년에 드디어 첫 목회지 엑스모라와 알링아비어(Exmorra/ Allingawier)에 있는 교회로부터 목회자 청빙이 오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프리슬란트 주에서의 목회는 그가 1683년 홀란트주에 속한 로테르담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까지 21년간 지속된다.

첫 목회지에서 3년간 신실하게 목회를 한 아 브라컬은 1665년에 스파포르른(Stavoren)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된다. 스파포르른에서의 목회 기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지만, 그의 장례설교에서 아브라함 헬렌브룩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아 브라컬은 “스파포르른에서 예외적인 열매를 누렸다.”고 한다.³¹ 그러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고, 회중을 잘 섬기기 위해 다른 목사를 한 명 더 청빙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내어야만 했다.³² 한편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실이 부족하여 슬퍼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늙어서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위로하셨다는 말을 남기기도 한 시기이다.³³ 그리고 아

29 안나 판 스크르만에 대해서는 P. van Beek, *The First Female University Student: Anna Maria van Schurman*(Utrecht: Igitur, 2010)을 보라(이 책은 <https://dspace.library.uu.nl/handle/1874/235540>에서 자유로이 접근 가능함).

30 Fieret, *Wilhelmus à Brakel*, 42-44. 테오도루스 아 브라컬과 안나 판 스크르만이 잘 알고 지냈기에 아들 빌헬름도 자연스럽게 안나와 그리고 그녀와 친했던 사리를 알게 된 것이다(J. de Boer,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volgens de opvatting van de Nadere Reformatie* (Rotterdam: Bronder-Offset, 1968), 190).

31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15에서 재인용.

32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컬,” 46. 아 브라컬은 당시 프리슬란트주 총독의 어머니이던 알베르티나 아그네스 오라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여 받은 기부금으로 자신은 생활하고, 새로이 부임한 목회자에게는 자신이 스파포르른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받도록 조치했다.

33 Fieret, *Wilhelmus à Brakel*, 68: “Het was alsof hij een stem hoorde die zei: ‘In de grijze ouderdom zult gij nog vruchten dragen.’”

브라켈은 당시 교회의 부패와 쇠락에 맞서 라바디즘에 경향하게 된다.³⁴ 그래서 1669년에는 암스테르담에 체류중이던 장 드 라바디(Jean de Labadie, 1610-1674)를 직접 만나기도 한다. 스파포른에서 아 브라켈의 아내 사라는 술라미트(1666), 테오도루스(1668) 그리고 마리아(1670) 등을 출산했고, 그후에도 두 명의 딸을 더 낳게 된다. 그러나 장녀 술라미트를 제외한 네 명은 태어나 얼마있지 않아서 영아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두 부부는 믿음으로 감내해 내어야만 했다.³⁵

1670년에 이르러 아 브라켈은 세 번째 목회지인 하알링언(Harlingen)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 하알링언은 당시 번창하던 항구 도시였으며, 프리슬란트주와 흐로닝언주의 해군 본부(the admiralty)가 위치하고 있는 요새화된 도시이기도 했다. 다른 세 명의 동료목회자들과 3년간 사역하는 동안 아 브라켈은 사역의 복을 누렸다.³⁶ 30년이 지난 후에 쓴 『합당한 예배』 19장에 보면 아 브라켈은 하알링언 시절을 회상하며 말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섬겼던 하알링언교회에서 여섯 또는 여덟 자매들을 통해 주님께서 복 주신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여선지자로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으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과 회심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복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³⁷

그러나 아 브라켈이 목회하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아니었다.

34 아 브라켈이 활동했던 네덜란드 교회의 위기의 주요 요소들과 라바디의 분열주의에 관해서는 주도홍, 『독일의 경건주의』 (서울: CLC, 1991), 165-173을 보라. 그리고 아 브라켈이 라바디즘에 마음이 기울어졌던 이유중 하나는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우트레흐트에서 영적 교제를 가졌던 안나 판 스크르만이 라바디즘에 속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진다(Jan van Genderen, "Wilhelmus à Brakel (1635-1711)," 165).

35 Fieret, *Wilhelmus à Brakel*, 69. 술라미트는 장성하여 프랑코 판 데어 끌콰이트(Franco van Kluit)목사와 결혼하였다. 테오도루스-빌헬무스 아 브라켈 이후 직계 남자 자손은 대가 끊겨진 셈이다.

36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15-16.

37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940. 아 브라켈이 자신의 아버지의 저서 『영적 삶의 단계들』(*De trappen des geestelyken levens*)을 출간한 것도 1670년 하알링언에 부임하여서이다. 이 책은 푸치우스에 의해서 찬사를 받았으며, 1698년에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한다.

회란 역사 가운데 “재난의 해”(the year of disaster)라 일컬어지는 1672년에³⁸ 프리슬란트주는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으나 고위관리들과 평민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폭발 직전에 이르게되었고, 이에 프라너꺼르 노회 소속의 목회자들은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프리슬란트주 전지역 목사들이 1672년 7월 레이바르던에 모여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만 사항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주의회에 제출하였다.³⁹

1673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출생도시이자 당시 프리슬란트주의 주도였던 레이바르던(Leeuwarden)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다른 5명의 목회자와 더불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레이바르던에서의 목회는 10년간 이어졌으며, 프리슬란트주에서의 마지막 목회지가 되었다. 레이바르던에서의 신실한 목회사역 기간은 세 번의 중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첫째는 아 브라컬이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conventicle, 회란어로는 gezelschp)들을 가지도록 한 것이 레이바르던 교회 당국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아 브라컬의 의도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경주해와 교리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내적이 고도 경험적인 신앙생활, 경건의 실천에 대해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레이바르던 시당회는 이러한 모임들이 교회안에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를 만들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라바디즘이 개혁교회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우려를 가졌다. 갈등 끝에 결국 레이바르던 시당회는 “모든 목사는 자신의 교구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으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 브라컬은 마음 내키지 않으나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⁴⁰

레이바르던에서 그가 휘말려들게 된 두 번째 논쟁은 교회개혁을 외치다가 자신의 목회지 슬와이스(Sluis)에서 행정 당국의 제재를 받은 야코부스 꼴만(Jacobus Koelman, 1632-1695) 목사를 자신의 강단에 세운 일로 벌어진

38 1672년이 왜 재앙의 해(회란어로는 rampjaar라 불림)라 불리우는지 Israel, *The Dutch Republic*, 807-810을 보라.

39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48-49. 보다 자세한 소개는 Fieret, *Wilhelmus à Brakel*, 73-76을 보라.

40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53-54.

것이다.⁴¹ 1676년과 1677년 노회는 거듭 아 브라컬이 꼴만에게 설교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책망했다. 그러나 아 브라컬은 “그 어떤 정치적 조직도 목사를 면직시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급기야 프리슬란트주 총회에서 까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일로 프리슬란트 주 당국은 아 브라컬에게 4주간 설교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 브라컬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부는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강단으로 올라갔다. 이 일로 아 브라컬은 오히려 성도들의 더 큰 지지를 얻게 되고, 급기야는 “국가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a man of national renown)이 된다.⁴² 프리슬란트주 정부는 거치른 표현에 대한 사과만 받고, 아 브라컬의 입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코케이우스파에 속한 다빗 플루트 판 히븐(D. Flud van Giffen, 1653-1701)목사가 시편 8편 2절을 기독교론적으로 설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판 히븐은 코케이우스주의자로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주 예수님의 예언적 모형이 발견된다”는 해석 원리에 따라 시편 8편 2절도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 브라컬은 그러한 해석은 부자연스러우며 해당 본문은 “온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한 거룩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교를 하고, 그후에는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다. 이것이 그의 첫 저술인 『할렐루야』(1679)이다.⁴³

3. 로테르담에서의 목회 기간(1683-1711)

레이브라던 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 브라컬은 거듭된 로테르담 교회로부터의 청빙을 수락하여 1683년 11월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⁴⁴ 거치른

41 Beeke and Pederson, *Meet the Puritans*, 772-776에 꼴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다. 꼴만의 저서도 한역본이 있다: Jacobus Koelman, *The Duties of Parents*, 유희희 역,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양육』 (서울: 개혁된 실천사, 2019).

42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16;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54-58. 피레트는 그가 “설교자로서의 탁월한 은사와 정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레이브라던에서 높은 신명”을 얻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의회도 그와 대립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61).

43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60. 아 브라컬은 설교문 그대로가 아니라 수정을 하여 *Halleluja, ofte lof de Heeren over het Gnaden-verbondt* (1689)로 출간한다.

남해(Zuiderzee)를 여행하는 동안 강한 폭풍우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로테르담에 부임하여, 1683년 11월 21일에 취임 설교(본문- 고후 5:20)를 하게 된다. 그의 설교에 대한 피레트박사의 논평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홀란트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사역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으며 여기서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섰다. 훗날 직접 기록했듯이,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의 인생의 장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⁴⁵

1711년 소천하기 까지 아 브라켈의 로테르담 목회는 28년간 이어졌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요 목회자로서 많은 양무리를 섬겼으며, 두 가지 주요한 논쟁에서도 부동의 바른 입장을 고수했으며, 나아가서는 『합당한 예배』를 비롯한 몇 권의 저술들을 출간하기도 하게 된다.

로테르담 사역 초기에 부딪친 논쟁은 라바디파와 관련한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스파포른 목회시절에 아 브라켈은 부패한 국가교회에 맞서 “할 수 있는 한 엄격하게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순수한 교회에 대한 이상”을 추구했던

44 아 브라켈이 프리슬란트주를 떠나 당시로서는 비교적 거리가 먼 홀란트주로 목회지를 옮길 수 있게 된 이유들 중 하나는 그의 아버지 테오도루스(Theodorus à Brakel, 1608-1669)가 1669년에 이미 소천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생시에는 부자가 비교적 근거리에서 각기 사역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5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켈,” 64. 또한 아 브라켈의 설교해 대해서는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켈,” 35-44; 서요한, “빌헬름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신학사상,” 457-462; T. Brienens, *De prediking van de Nadere Reformatie*, 2nd ed. (Amsterdam: Ton Bolland, 1981), 117-125. 브리넨에 의하면 아 브라켈은 원고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고가 15편 밖에 없다(119). 그 가운데 별도로 출판되기도 하는 “열처녀 비유” 설교를 포함하여 10편의 설교는 Willemus à Brakel, *De ware Christen of oprecht geloovige* (Utrecht: Den Hertog, n.d.)에 수록되어 있다.

라바디파에 대해 마음이 끌린 바가 있고,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사적 집회”를 목회지 내에서 가지려고 시도했다가 교회 당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주의적인 운동은 교회내에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았기에, 푸치우스와 꼴만은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로테르담 목회자 아 브라컬도 비판의 글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아 브라컬은 1685년에 이르러 라바디파의 지도자인 이봉(P. Yvon)에 대항하여 『라바디파의 교리와 통치』라고 하는 저술을 출간하기에 이른다.⁴⁶ 아 브라컬은 “많은 회중 가운데 죄와 부패가 만연하고 영성이 결핍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서, 당시 교회가 비록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점을 강변했다. 그는 본서를 통해서 라바디즘의 분리주의를 강력하게 경계했다.⁴⁷

아 브라컬이 로테르담에서 휘말리게 된 두 번째 주요 논쟁은 로테르담 당회가 추천한 새로운 목회자 후보를 로테르담 시당국이 인준하기를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⁴⁸ 이 일은 1688년 7월에 일어난 일이고, 이에 맞서 아 브라컬은 시편 2편 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위정자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로 인해 시당국은 분노하게 되고, 아 브라컬의 설교권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시에서 나가는 급여도 중단시켜버렸다. 이에 아 브라컬은 시외곽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설교 사역도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를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다.⁴⁹ 이렇게 시당국과의 불화 끝에 아 브라컬은 목회지를 잃을 위기에까지도 처했지만, 시목회자들이 그를 지지했고, 후에는 빌름 3세(후에 윌리엄 오렌지 왕으로 등극)의 후원을 힘입어 1690년에 이르러는 시당국과 화해에 이르게 된다.⁵⁰

46 Willemus à Brakel, *Leere en Leydinge de Labdisten* (Rotterdam: Nikolaas Topyn, 1685).

47 아 브라컬은 자신의 저서속에서 라비디스트였던 이봉의 칭의론, 순수한 사랑과 불순한 사랑에 대한 견해, 자신의 이웃이 거듭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 등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68-72).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2:334, 94, 113, 124 등에도 라바디파에 대한 비판이 실려있다.

48 이 논쟁에 관해서는 Fieret, “빌헬무스 아 브라컬,” 73-75을 보라.

49 Willemus à Brakel, *De Heere Jezus Christus voor de alleene ende Souveraine Koninck over zijne Kercke uytgeroepen*(Amsterdam: Johannes Boekholt, 1688).

이처럼 로테르담에서 라바디스트와 시당국에 대한 힘겨운 투쟁이 끝나고 나서, 그의 남은 목회 기간은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그 평온한 시기(1690년대)에 사역에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론을 방대하게 전개한 『합당한 예배』(*Λογικη Λατρεια dat is Redelyke Godtsdiens*)를 저술하여 1700년에 출간하기에 이른다. 그의 나이 65세일 때이고, 목회를 시작한지 38년만에 대작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대작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아 브라컬 생전에는 1707년에 출간한 3판이 최종 수정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아 브라컬은 충성되어 목회하다가 1711년 10월 30일에 소천했다. 당시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볼때는 상당히 고령인 76세에 소천하면서도 아 브라컬의 정신은 맑았고,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감미롭고 변함없었다. 죽음의 병상(deathbed)에서 그는 스승 푸치우스가 그렇게 했듯이 “오, 예수님 나의 가장 달콤한이시여, 험떡이며 갈망하는 영혼의 소망이시여”(O *Jesu mi dulcissime, Spes suspirantis aniamae*)라는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고백을 거듭 거듭 반복했다.⁵¹ 그리고 죽기 한 시간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 브라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다.

나는 나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잠잠히 나 자신을 그분께 내드립니다.⁵²

임종의 시간들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아 브라컬의 신앙과 경건은 그리스도 중심적(Christ-centric)이었다는 것을 알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경건

⁵⁰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18. 엘스하우트는 아 브라컬이 시당국에 대해 싸운 명분이 “에라스투스적인 교회 정치관”에 대한 강한 저항이었다고 적시해준다(39). 또한 à Brakel,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2:107을 보라.

⁵¹ de Reuver, *Sweet Communion*, 234.

⁵² Fieret, “빌헬름스 아 브라컬,” 80. 화란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el wel; ik rust in mynen Jezus; ik ben met hem vereenigt; ik wagt maar dat hy kome; dog ik onderwerpe my met alle stilheid.”(Los, *Wilhelmus à Brakel*, 100-101). 한편 그의 소천후에 다니엘 르 로이(Daniel Le Roy)와 아브라함 헬렌브룩(Abraham Hellenbroek)이 각기 장례식 설교를 했고, 팸플릿으로 출간되어졌다.

의 실체가 강력하게 대변되고 있는 책이 바로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III.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판본, 구성과 특징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 브라컬의 대작의 출간과 번역에 대한 약사를 개관하는 것과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판본과 번역

빌헬무스 아 브라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1700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변화한 항구도시의 목회자였지만 대작을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책을 출간해 주려고 하는 출판업자를 만났는데, 그는 개혁파교인이 아니라 로마교교인이었던 코르넬리스 판 데이크(Cornelis van Dyck)라는 사람이었다.⁵³ 그러나 아 브라컬의 대작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1701년에는 2쇄가 출간되기에 이른다. 본서를 처음 출간할 때의 나이가 65세로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노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브라컬은 본서의 개정 증보 작업에 매진하여 72세가 1707년에 제3판 증보판을 출간하기에 이른다.⁵⁴ 아 브라컬이 3판 증보판을 준비하는데 다소 지체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사라 네피우스(Sara Nevius)의 사후에 발견된 기록을 편집 출간하는 일에 시간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다.⁵⁵ 아무튼

53 Wilhelmus à Brakel, *Logike Latreia dat is Redelyke Godtsdienst in welken de Goddelyke Waerheden des Genade -Verbondts Openbaringe van Johannes worden verklaert, tegen partyen beschermt, en tot practyke aengedrongen* (Rotterdam: Cornelis van Dyck, 1700). Cf. Beeke and Elshout, "Preface," xix.

54 그간에 출판인은 Rotterdam소재 요한네스 드 멜란더(Johannes de Melander)로 변경된다. 3판에서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De Reuver, *Sweet Communion*, 235을 보라.

55 Sara Nevius, *Een aandachtig leerling van de Heere Jezus* (1706). 이 책 역시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현대 화란어로 옮기고 일일 묵상록 형태로 편집한 판본도 출간되어 있다

이 3판이 아 브라컬의 손에서 개정된 마지막 판본이자, 내용상 표준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3부작의 분량은 2,300쪽이 넘는다.⁵⁶ 이미 1판이나 2판을 소장하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아 브라컬은 3판을 다시 구입하여 읽음으로 건덕에 이를 것을 권하기도 했다.⁵⁷

그러나 아 브라컬의 우려와는 달리 그가 마지막으로 손질한 제3판이 표준판이 되었고,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조엘 비키는 본서가 18세기 동안 총 20번이나 출판되었다고 말해 주는데,⁵⁸ 몇 몇 자료들을 참조하여 18세기의 출판 상황을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⁵⁹

1판	1700	6판	1715	11판	?	16판	1749
2판	1701	7판	1717	12판	1733	17판	1767
3판	1707	8판	1720	13판	1736	18판	1780
4판	1713	9판	1723	14판	1739	19판	1780
5판	1714	10판	1726	15판	1742	20판	1795

위의 도표를 근거로 해볼 때, 18세기 전반에는 본서의 출판을 왕성했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재판 속도가 완만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⁶⁰ 이러한 추세 변화 이유로서 “약 1750년경에 개혁파 신학은 사방에서 쇠퇴하기 시작

(Sara Nevius, *Een aandachtig leerling van de Heere Jezus* [Veenendal: Kool, n.d.]).

56 3판 (1707년) 화란어 원본은 1권- 1134쪽, 2권- 774쪽, 3권- 360쪽과 인덱스 42쪽해서 총 2,310쪽에 이른다.

57 “If anyone unhappy because the third edition has been expanded, let them be so only mildly and give their first or second edition to someone with fewer resources than they possess, for in so doing and by acquiring a copy of the third edition for themselves, they will be edified.”(De Reuver, *Sweet Communion*, 235에서 재인용). 3판에서 이루어진 수정 증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를 보라.

58 Beeke and Pederson, *Meet the Puritans*, 749.

59 www.prdl.org에서 다양한 판본을 접근할 수가 있지만 20쇄 전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락된 부분은 Los, *Wilhelmus à Brakel*, 298-299을 참고하였다. 로스의 저술은 1892년 레이든대학에서 통과된 박사논문으로, 오랫동안 표준적인 연구서로 활용되어왔다.

60 판 헨드르른은 비치우스에 관한 자신의 박사논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De meest populaire dogmatiek was in de acttiende eeuw de *Redelijke Godsdienst* van ‘Vader’ Brakel.” (Jan van Genderen, *Herman Witsius: Bijdrage tot de kennis der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Guido de Bres, 1953], 233)

했다”고 평가한 바빙크의 시대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⁶¹

그러나 자유주의가 유럽 전역뿐 아니라 네덜란드 교계까지 석권했던 19세기에 조차도 아 브라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여러 차례 재출간되었다.⁶² 왜냐하면 까렐스가 단적으로 잘 지적한대로 “아버지 브라컬은 특히 그의 저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와 더불어 체험적인 개혁파 신자들에 사랑받은 저자”였기 때문이다.⁶³ 실례로 레이든에서 자유주의에 물들었다가 개혁주의로 전향하고 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첫 목회인 베이스트(Beesd)에서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된 정통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읽고 있던 책들도 아 브라컬을 포함한 소위 “옛 저자들”(Oude Schrijvers)의 책들이었다.⁶⁴ 레이든 시절에 알지 못했던 이런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기의 저술들을 재발견한 카이퍼가 그 후 한 일중 하나는 그런 저술들(특히 푸치우스)을 발굴하여 복간하는 작업이었다.⁶⁵

한편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아 브라컬의 대작은 계속해서 재출간된다. 특히 우트레흐트 소재 드 바니어(De Banier) 출판사는 지속적으로 영인본을 출간하여 2010년에는 14쇄에 이른다.⁶⁶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아 브라컬에 대한

61 Bavinck, 『개혁교의학1』, 268. 이어지는 바빙크의 논평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러한 평가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미 이전 세기에 현존했던 와해(瓦解)의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여 교리학을 약화시켰다. 록케이우스주의가 네덜란드에서 승리를 거둔 뒤, 관용자들의 기간(1740-1770)이 찾아왔다. 진리의 능력은 부인되었고,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고백에서 성경으로 후퇴하여 독특한 개혁파 교리들, 즉 원죄, 행위언약, 제한속죄 등과 같은 것들을 포기했다. 미적 형태와 성경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항변파적, 소시누스적 오류들이 등장했다.”

62 화란의 중고서적상들을 네트워크한 www.antiqbook.com을 검색한 결과 적어도 세 출판사가 아 브라컬의 책을 재출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Nijkerk 소재 I. J. Malga사(1854-1855, 1870년), Leiden 소재 D. Donner사(1881-1882, 1893년), 그리고 Amsterdam소재 J. Brandt en Zoon사와 Haarlem 소재 Johannes Enschedé en Zonen사(1895년) 등이다. 19세기 재판본들의 장점은 17-18세기 인쇄체나 스펠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3 J. K. Karels, “à Brakel,” *Christelijke Encyclopedie*, 3rd ed. (Kampen: Kok, 2005), 1:240: “Als ‘Vader Brakel’ is hij een geliefd auteur onder bevindelijk gereformeerden, vooral met zijn *Logike latreia, dat is redelijke godsdienst* (1700, vele herdrukken)”

64 Abraham Kuyper, “Confidentially,” in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56-61. “옛 저자들”에 대한 입문서로는 Willem van’t Spijker e.a. eds., *Oude Schrijvers: Een kennismaking* (Houten: Den Hertog, 1998)이다.

65 카이퍼는 아 브라컬의 교본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유보적인 브라컬 평가는 Los, *Wilhelmus à Brakel*, 264-265을 보라.

관심은 식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⁶⁷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의 개혁파 영성학 교수인 빌름 판 플라스따윈(Willem van Vlastuin)은 2016년 <개혁일보>를 통해 아 브라켈의 책이 통산 36쇄나 인쇄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⁶⁸ 그리고 17-18세기 화란어로 쓰여진 본서를 현대 화란어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야스브르 스타(Jasper Stam)에 의해 현대 화란어로 재번역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마침내 2019년에 완간하게 된다.⁶⁹ 아울러 에프르트 바르튼(Evert Barten)은 방대한 대작을 요약 개관하고 해설하는 형식으로 입문서를 출간하기도 했다.⁷⁰

화란어 판본 출간 약사를 살펴보기만 해도 아 브라켈의 대작이 네덜란드 개혁파 교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⁷¹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 스스로도 탄식했듯이 화란어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화란어에 갇혀 있는 동안 아 브라켈의 대작은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거나 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다.⁷² 그러나 화란어와 이웃 언어인 독일어로는 이미 1716년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⁷³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간

66 Fieret, *Wilhelmus à Brakel*, 190.

67 1983년에 창립된 나더러 레포르마찌 연구 재단(Stichting Studie der Nadere Reformatie, 약칭 SSNR)은 나더러 레포르마찌 자료집(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학회를 개최하면서 메일링크나 아 브라켈과 같은 해당 시기의 신학자들의 사상과 기여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참고- <http://www.ssnr.nl/ssnr>).

68 *Reformatorsch Dagblad*, 2016sus 2월 19일자.

69 Wilhemus à Brakel, *Redelijke Godsdienst*, Ia, Ib, Ila, Ilb, III (Apeldoorn: Banier, 2016-2019). 텐 헤르톡 서점 소개에 의하면 본서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이유는 오는 세대가 본서를 읽을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Om de Redelijke Godsdienst ook voor komende generaties leesbaar te houden, is het boek hertaald.”- <https://www.hertog.nl/artikel/9789462780040/?sqr=a%20brakel&>).

70 Evert Barten, *Helder en klaar: De Redelijke Godsdienst van à Brakel uitgelegd*, 3 dln. (Houten: Den Hertog, 2018-2019).

71 아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화란에서 미친 영향사(Wirkungsgeschichte)에 대해서는 Los, *Wilhelmus à Brakel*, 253-267(VII. Brakel's Invloed)을 보라.

72 Abraham Kuiper,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칼빈주의 강연』(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200. 물론 카이퍼가 안타까워한 이유는 “우리 화란어가 좁은 경계에 갇혀 있어서 화란의 시가 넓은 세계에 소개되지” 못했다는 점을 토로할 때이다. 그러나 이는 시문학 뿐 아니라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대나 19-20세기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수 많은 대작들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73 *Logike latreia, das ist Vernünfftiger Gottesdienst worinnen die Göttliche Wahrheiten*

화란인들이 세운 미국 개혁교단(RCA) 총회는 이미 18세기말에 이 대작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⁷⁴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이르러 마침내 조엘 비키가 편집자로 수고하고 처음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출판사가, 후에는 비키가 경영하는 RHB사를 통해 네 권의 영역본을 출간하는데 성공하게 된다.⁷⁵ 이러한 영역본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개혁파 계열의 학교 교장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는 헤리티지 개혁교단 목회자로 사역중인 바르틀 엘스하우트(Bartel Elshout, 1949-) 목사가 6년 동안(1989-1995)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아 브라컬의 대작을 완역하는 일에 일로매진했기 때문이다.⁷⁶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영역본(2003-2008)이 출간된 후에 영역본에 근거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듯이,⁷⁷ 엘스하우트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영역본도 다른 언어로 아 브라컬의 대작이 소개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2014년에 나온 중국어 완역본이며,⁷⁸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어 번역본이 두 번째 사례에 속한다.⁷⁹

der gantzen Theologie gründlich erkläret/ gegen alle Einwürffe kräftig verthätigt und aufs genaueste zur Practic angedrungen werden. (Franckfurt, Leipzig, 1716).

74 Beeke and Pederson, *Meet the Puritans*, 749.

75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trans. Bartel Elshout, 4vols. (Orlando: Soli Deo Gloria, 1992-1995; 그 후에는 Grand Rapids: RHB에 의해서 출간되고 있음).

76 엘스하우트목사는 아 브라컬의 대작을 완역해낸 후에는 아 브라컬과 본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출간하기도 했다: Bartel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 A Brief Evaluation of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Grand Rapids : RHB, 1997).

77 이 영역본에 근거하여 포르투갈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완역, 스페인어로 일부 번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박태현의 한역본은 화란어 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영역본과 비교 과정에서 150곳이 넘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기도 했다(이상용,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주저 개혁교의학,” 『신학지남』 81/1 (2014), 57-89).

78 布雷克, 『理所当然的侍奉 1-4』(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14). 중국어 번역본은 총 2,458쪽이다. RHB 사이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https://www.heritagebooks.org/products/the-christians-reasonable-service-4-volume-set.html>).

79 이런 면에서도 조엘 비키와 RHB사가 화란 개혁신학자들의 원저를 영어로 소개하는 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이다. 2019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Petrus van Mastricht, *Theologia theoretico -practica* (Utrecht 1699)의 영역본 작업(총7권으로 예상됨)도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 영역본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역본도 출간되고 있다(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구성과 특징들

한역본이나 중국어 역본은 영역본에 따라 총 네 권으로 분책을 했으나, 원래 화란어 원본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란어 1권을 영역본(과 한역본)은 두 권으로 분책을 하고(1,2), 2권을 또 다른 두 권(3,4)으로 분책을 한 것이다. 화란어 원본 3권에 수록되어 있던 구약과 신약에 있어 언약신학의 경륜이라는 글은 4권 말미에 붙이고, 원래 3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요한계시록주석은 번역하지 않고 생략을 했다.⁸⁰ 2006년에 출간한 『청교도를 만나다』에서 비키는 RHB판은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350쪽 분량의 일종의 부록은 번역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할 뿐이지만,⁸¹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영역본을 끝내면서는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논란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 브라켈의 주해는 본 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 브라켈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주해를 따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⁸²

나더러 레포르마찌(Nadere Reformatie) 분야의 전문가인 얀 판 헨드르도 “3권은 덜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⁸³ 그러나 2016년에 이르러 그 누락된 요한계시록 주석 부분이 별도로 영역된 것은 그간에 궁급증을 안고 있던 독자들에게 유익한 봉사라고 할 것이다.⁸⁴

⁸⁰ À Brakel, *Logike Latreia dat is Redelyke Godtsdienst*, 3:145-360.

⁸¹ Beeke and Pederson, *Meet the Puritans*, 752.

⁸²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4:802. 아 브라켈과 많은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기의 신학자들은 청교도들처럼 후천년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아 브라켈의 천년기론에 대해서는 W. Meijer, “De Heerlijke staat der kerke: De visie op het duizendjarig rijk en de toekomst van het Joodse volk bij Wilhlmus à Brakel”(doctoraalscriptie te Utrecht 2002)와 Evert Barten, *Helder en klaar: De Redelijke Godsdienst van à Brakel uitgelegd*, 3 dln. (Houten: Den Hertog, 2018-2019), 3:214-225를 보라.

⁸³ Van Genderen, “à Brakel,” 14: “Het derde deel is minder belangrijk.” 또한 아 브라켈의 종말론에 대한 판 헨드르의 논평은 Van Genderen, “Wilhelmus à Brakel (1635-1711),” 175-178을 보라.

⁸⁴ Wilhelmus à Brakel, *Not to be Ignored: Rev. Wilhelmus à Brakel's Commentary on Revelation*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현대 화란어로 번역된 요약판도 최근에 출간되었다: *Toebereid vanuit de hemel - korte, bevindelijke*

이제 본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도표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도표를 통해 본다면 원본과 영역본의 구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화란어 원본(1707년)		영역본(중국어, 한역본)	
1권	신론(1-9장) 인죄론(10-15장) 기독론(16-23장) 교회론(24-29장) 구원론(30-43장)	1권	신론(1-9장) 인죄론(10-15장) 기독론(16-23장)
		2권	교회론(24-29장) 구원론(30-43장)
2권	구원론(44-74장) 구원론(75-99장) 종말론(100-103장)	3권	구원론(44-74장)
3권	부록- 은혜언약 <u>요한계시록주석</u>	4권	구원론(75-99장) 종말론(100-103장) 부록- 은혜언약 요한계시록주석 생략

이러한 구성을 살펴보면 아 브라켈은 전통적인 로치(Loci)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신론, 인죄론, 기독론을 다루고 나서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 먼저 온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점에 관해 리처드 멀러는 “아 브라켈은 먼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나서, 구원이 설교되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구원을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적실하게 논평을 했다.⁸⁵

또한 분량면에서 고려할 때에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구원론의 분량이 방대하고, 일반적인 교의학 교본에 다루어지는 구원론의 주제들 보다 많은 주제들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⁸⁶ 일반적으로 구원론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30-35장에서 다루고, 이어서 영적인 화평, 신령한 기쁨, 성령의 인치심과 성례, 세례, 성찬, 믿음의 삶, 경건주의자와 정적주의자, 그리고

verklaring van het Bijbelboek Openbaring (Utrecht : VBK Media, 2019)

85 Richard Muller, “한국어판 머리말,” in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7.

86 엘스하우트는 분량상 대략 60퍼센트가 구원론에 해당한다고 적시한다(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23).

본성적 신앙으로 어긋난 자들을 향한 경고의 권면을 제시한다(번역본 2권). 그리고 3권에서는 성화와 거룩함을 다루고(44장), 이어서 율법에 대한 서론적 논의와 10계명 해설을 제시하고(45-55장),⁸⁷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56-67장).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영적 담대함,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고백함, 만족, 자기 부인, 인내, 정직함 등. 아 브라켈은 이어서 68장에서 기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주기도 해설을 74장까지 제시해준다. 그리고 번역본 4권에 들어가서는 경건의 훈련의 다른 국면들과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75-88장까지 다룬다. 그리고 남은 89-99장에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퇴보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구원론의 마지막 99장은 전인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구원론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비키와 엘스하우트가 최근에 강조한대로 아 브라켈과 청교도들의 유사성을 확연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⁸⁸

아 브라켈의 『합당한 예배』의 부제에서 강조하듯이 본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언약 신학에 대한 강조이다. 12-13장에서 행위언약과 파기를 다루고, 16장에서 은혜언약을 다루고, 부록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은혜 언약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⁸⁹ 17세기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기에 활동한 네덜란드 신학자들에게는 언약(foedus)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했다. 푸치우

87 멀러는 이렇게 아 브라켈이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율법에 대해 논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환기시킨다”라고 평가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율법을 우리 삶의 척도요 표준으로 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아 브라켈은 구조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평가한다(Muller, “한국어판 머리말,” 17).

88 비록 길기는 하지만 비키의 최근 논평은 인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영국 청교도 문헌과의 유사성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점은 성화의 삶에 전적으로 할애한 3권과 4권에서 특히 명백하다. 청교도들이 그러하듯이, 아 브라켈은 영적인 삶과 변화에 대해 친밀하게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능한 영혼의 의사였다. 청교도들처럼 경건은 우리가 영혼안에 진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성경적인 증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해설했다. 내적인 경험은 참된 경건 속에서 외적으로 자신을 현시한다.”(<https://credomag.com/2019/06/wilhelmus-a-brakel-and-the-christians-reasonable-service/>, 2019.12.11. 접속)

89 아 브라켈과 비치우스의 행위언약론 비교를 담은 Richard A. Muller,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Stability of Divine Law in Seventeenth-Century Reformed Orthodoxy: A Study in the Theology of Herman Witsius and Wilhelmus à Brake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9/1 (1994), 75-100를 보라.

스, 코케이우스 뿐만 아니라 비치우스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히트 등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 브라켈은 자신의 스승들이나 동료 신학자들과 더불어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확립하여 가르쳤다.⁹⁰

구조와 내용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들 중에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특징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아 브라켈은 방대한 대작을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자신이 반세기 가까이 사역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읽히기를 희망해서 당시의 학문적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화란어로 본서를 집필했다.⁹¹ 비록 교의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논의 순서나 주제들을 따라서 서술했고, 때로는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반박을 한다든지, 개혁주의 정통주의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아 브라켈은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큰 특징이고, 많은 학자들이 기꺼이 인정하는 사실이다.⁹² 엘스하우트는 그의 대작이 “체험적인 조직신학”(the experiential systematic theology)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한 “적용된 신학”(the applied theology)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⁹³ 혹은 폴 스몰리는 “내가 이때껏 만난 성경적이고, 교리적이며, 체험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학의 가장 놀라운 종합을 아 브라켈에게서 발견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⁹⁴

90 Cornelis Graafland, *Van Calvijn tot Comrie*, deel 5-6 (Zoetermeer: Boekcentrum, 1993), 6:343-351. 또한 판 헨드룬은 다음과 같이 논평해준다: “Brakel koos de locaalmethode en verwerkte de vebondsgedacte in zijn boek, zoals reeds blijkt uit de titel.”(Van Genderen, *Herman Witsius*, 234)

91 à Brakel,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124. “그러하기에 저는 제 작품을 유력한 자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헌정하며,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 브라켈은 이어서 신학생들, 설교자 후보생들과 젊은 목회자들도 본서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준다: “부디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을 수호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그들의 교회 회중에게 전하여 영혼이 회심하고 강건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92 Van Genderen, “Wilhelmus à Brakel (1635-1711),” 166: “Het is geen theologisch handboek, maar een eenvoudig en overzichtelijk geschreven verhandeling over het christelijk geloof en het christelijk leven. Het eerst deel is een bijna complete geloofsleer. Brakel was uitermate praktisch. Dat is ook het geheim van zijn invloed.”

93 Elshout,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20.

94 Smalley, “Introduction: The Puritan Piety of Joel Beeke,” 9. 아 브라켈은 동시대 신학자였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기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빌헬름스 아 브라컬의 생애와 그의 주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 대하여 입문적인 고찰을 해보았다.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아 브라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입문적인 고찰은 추후 논의의 활성화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앞선 논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한다.

첫째, 우리는 아 브라컬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 브라컬은 경건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경건하게 양육받았고,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40년간 개혁교회 목회에만 일로매진한 목회자였음을 확인했다. 목회를 한 후에 신학교수가 된 당시대의 수 많은 신학자들과 달리 아 브라컬은 단 한 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학위 공부를 한적도 없는 목회자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가 목회에만 전념했다고 해서, 당시대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비견될 만한 신학적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는 8년간의 공식적인 신학 공부를 한 후에, 원어성경에 근거를 둔 설교 사역을 했고, 또한 교리문답 교육에 전념했던 설교자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개혁교회 교리와 신학에 대해 문외한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가 만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서 분명하게 그 성격을 드러내듯이 그의 신학이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천적인 언어로 대중적인 교의학을 집필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둘째, 우리는 아 브라컬의 주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출판 경위와 출판 역사 그리고 번역의 역사 등을 살펴보았다. 아 브라컬의 주저는 2천 페이지 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지난 300년 동안 절판되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되어

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흐트의 다음과 같은 신학의 정의에 대해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로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하나님 예배와 불멸의 영혼의 영원한 복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관해 말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van Mastricht, 『이론과 실천신학』, 1:248).

왔고, 화란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전반에 그랬던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오히려 아 브라컬의 대작은 더 많이 읽혀지고 있고, 현대 화란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평생 목회에 전념했던 아 브라컬이 성경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교리들과 삶을 잘 해설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구조와 내용적 특징들을 개요적으로만 살펴보아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아 브라컬의 대작은 개혁주의 교리와 삶에 대한 교본이지만, 상아탑을 겨냥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300년의 세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독될 수 있었던 것이고, 1995년 영어 번역이 완간된 이후에는 영어권의 독자들까지도 아 브라컬을 애독하게 되었으며, 이제 한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경건한 신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애독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한역본의 출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속개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영역본에 생략되다보니 한역본에서도 생략된 『요한계시록 주석』도 완역되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아무리 그 중요성에 있어 앞 부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 들어있던 부분이니 만큼 반드시 번역되어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개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아울러 아 브라컬의 전기나 신학 개요서도 누군가 집필해서 독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또한 이제 한역본도 출간되었으니 신학계에서도 아 브라컬의 신학이나 나더러 레포르마찌 시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⁹⁵

95 본고는 아 브라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출간을 기념하여 2019년 12월 16일(월) 서울 강변교회당(이수환 담임목사)에서 지평서원의 주최로 열린 기념강좌에서 발제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연구한 것이다. 대작을 출간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린 지평서원 박명규 대표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참고문헌]

- Barten, Evert. *Helder en klaar: De Redelijke Godsdienst van à Brakel uitgelegd*, 3 dln. Houten: Den Hertog, 2018-2019.
- Baucum, Todd D. "Innate Knowledge in the Thought of Wilhelmus à Brakel." *Puritan Reformed Journal*, 6/2 (2014), 65-87.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전4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Beeke, Joel.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adere Reformati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8/2 (1993), 298-327.
- _____. *Gisbertus Voetius: Toward a Reformed Marriage of Knowledge and Piety*. Grand Rapids: RHB, 2001.
- _____. *Reformed Preaching*. 송동민 역. 『설교에 관하여』. 서울: 복있는사람, 2019.
- Beeke, Joel R. and Randall J. Pederson, *Meet the Puritans*. Grand Rapids: RHB, 2006.
- Beeke, Joel R. and Smalley, Paul M. "Wilhelmus à Brakel's Biblical Ethics of Spirituality." *Puritan Reformed Journal*, 8/2 (2016), 107-124.
- Brakel, Wilhelmus à. *Logike Latria, dat is Refelijke Godsdienst*. 2 Vols. Leiden Donner, 1893.
- _____. *De ware Christen of oprecht geloovige*. Utrecht: Den Hertog, n.d.
- _____.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Trans. Bartel Elshout, 4Vols. SDG; Grand Rapids: RHB, 1992-1995. 김효남, 서명수, 장호준 공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전4권. 서울: 지평서원, 2019.
- Bratt, James D.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 Brienen, T. *De prediking van de Nadere Reformatie*. 2nd Ed. Amsterdam: Ton Bolland, 1981.
- Brienen, T. e.a. Eds. *De Nadere Reformatie: Beschrijving van haar*

- voornaamste vertegenwoordigers. 's-Gravenhage: Boekencentrum, 1986.
- _____. Eds. *Theologische aspecten van de Nadere Reformatie*. 's-Gravenhage: Boekencentrum, 1993.
- Crawford, Brandon James. "This is Felicity and the Work of Glorified Souls': Wilhelmus à Brakel on the Glory and Glorification of God." *Puritan Reformed Journal*, 7/2 (2015), 147-176.
- Daalen, Lydia Kim-van. "Wilhelmus à Brakel's Spirituality of Virtue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l Care." *Puritan Reformed Journal*, 3/1 (2011), 279-303.
- De Boer, J.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volgens de opvatting van de Nadere Reformatie*. Rotterdam: Bronder-Offset, 1968.
- De Reuver, Arie. *Sweet Communion: Trajectories of Spirituality from the Middle Ages through the Further Reformation*. Trans. James A. de Jong. Grand Rapids: Baker, 2007.
- Dieleman, Kyle James. "The Battle for the Sabbath in the Dutch Reformation: Devotion or Desecratio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Iowa, 2017.
- Elshout, Bartel. *The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of Wilhelmus à Brakel : a Brief Evaluation of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Grand Rapids :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7.
- Fieret W. en A. Ros. *Theodorus à Brakel, Wilhelmus à Brakel en Sara Nevius*. Houten: Den Hertog, 1988.
- Fieret, W. *Wilhelmus à Brakel: Een gedreven dienaar in Gods kerk*. Houten: Den Hertog, 2016.
- Graafland, Cornelis. *Van Calvijn tot Comrie*. Deel 5-6. Zoetermeer: Boekcentrum, 1993.
- Haykin, Michael A. G. and Paul M. Smalley Eds. *Puritan Piety: Writings in Honor of Joel R. Beeke*. Fearn: Christian Focus, 2018.
- Holdt, Jonathan. "Wilhelmus à Brakel's Use of Doctrine in Calling Sinners

- to Repentance and Faith.” *Puritan Reformed Journal*, 3/2 (2011): 267-290.
- Hurd, Ryan M. “Wilhelmus à Brakel’s Pastoral Predestination.” *Puritan Reformed Journal*, 9/1 (2017), 141-162.
- Israel, Jonathan I.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칼빈주의 강연』.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Los, F. J. *Wilhelmus à Brakel*. Proefschrift te Leiden. Leiden: G. Los, 1892.
- Meijer, W. “De Heerlijke staat der kerke: De visie op het duizendjarig rijk en de toekomst van het Joodse volk bij Wilhlmus à Brakel.” Doctoraalscriptie te Utrecht 2002.
- Muller, Richard A.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Stability of Divine Law in Seventeenth-Century Reformed Orthodoxy: A Study in the Theology of Herman Witsius and Wilhelmus à Brake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9/1 (1994), 75-100.
- Prak, Maarten.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 Diane Web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Ros, A. *Theodorus à Brakel: Een voorbeeld van allertederste Godsvrucht*. Barneveld: Koster, 2000.
- Smalley, Paul M. “‘Satisfied with the Lord’s All-Sufficiency’: Wilhelmus à Brakel on Joy.” *Puritan Reformed Journal*, 3/2 (2011), 235-266.
- Stoeffler, F. Ernest. *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 송인설, 이훈영 역. 『경건주의 초기 역사』. 서울: 솔로몬, 1993.
- Van Genderen, Jan. *Herman Witsius: Bijdrage tot de kennis der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Guido de Bres, 1953.
- Van Mastricht, Petrus. *Theoretical Practical Theology*. 박문재 역. 『이론과 실천 신학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Van’t Spijker, Willem. 이신열 역. “네덜란드의 제2종교개혁.” 『갱신과 부흥』 12 (2013), 189-211.

- _____. “빌헬무스 아 브라켈 (1).” 『갱신과 부흥』 제13호 (2013), 168-181.
- _____. “빌헬무스 아 브라켈 (2).” 『갱신과 부흥』 제14호 (2014), 167-178.
<https://credomag.com/2019/06/wilhelmus-a-brakel-and-the-christians-reasonable-service/>
- 김영중. 『네덜란드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 서요한. “빌헬무스 아 브라켈의 생애와 신학사상.” 『총신대논총』 30 (2010), 430-469.
- 성희찬.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주일 논쟁- 푸치우스 (Voetius, 1589-1676) 파와 콕케유스 (Coccejus, 1603-1669) 파의 논쟁을 중심으로 -,” 『진리와 학문의 세계』 7/3 (2002), 15-46.
- 이상웅.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주저 개혁교의학.” 『신학지남』 81/1 (2014), 57-89.
- 주도홍. 『독일의 경건주의』. 서울: CLC, 1991.
- _____. “독일 개혁과 경건주의 연구의 과제.” 『역사신학논총』 2 (2000), 136-156.
- _____. “개혁교회 정통주의의 영성 이해 -푸치우스와 콕케유스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3 (2017), 223-243.

[Abstract]

Wilhelmus à Brakel(1635-1711)'s Life and
his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Sang Ung Lee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Associate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At the end of 2019, Wilhelmus à Brakel's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4vols.) was translated into Korean. À Brakel was the most popular author of renowned Dutch theologians and pastors who worked during the Nadere Reformatie period.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served as a practical dogmatics that had been read popularly even its being no longer available from the publisher for 320 years. However, this important book was confined within the linguistic limits of Dutch. It was a recent development for the book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which resulted in the publication into Korean. The publication of this masterpiece is expected to boost the research on Nadere Reformatie in Korea.

In commemoration of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this paper attempted to provide an academic introduction to Wilhelmus à Brakel and his opus magnum,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in Korea. First, I introduced the lif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Wilhelmus à Brakel (II) and then presented the history of publication, translation history, and the main features of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III).

After studying Reformed Theology for eight years, À Brakel had served as a pastor for 49 years and wrote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in his later years. Given this historical background, it helps

us understand the practical features of this book. And because of the practical nature,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has been steadily read in the Netherlands even nowadays. By reading and studying the text of à Brakel, we can clearly see the ideal of Nadere Reformatie: the harmony of godliness and learning. I believe this study will also help us find a way to enrich the next generation.

Key Words: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Nadere Reformatie, 17th Century Dutch Reformed Church, Reformed Dogmatics, Gisbertus Voetius